

[Beijing 2008 ‘숨은 주역’] 김정행 유도회장

2008-08-25 15:04:06



베이징 올림픽에서 한국에 첫 금메달을 안긴 남자유도 60 kg급 최민호 선수가 오스트리아 루드비히 파이셔를 시원한 한판으로 승리한 직후 흘린 기쁨의 눈물에 온 국민이 환호했다.

한국 유도대표팀의 금메달 1 개, 은메달 2 개, 동메달 1 개의 환희 뒤에는 김정행 한국선수단 단장 겸 대한유도회 회장(65·용인대 총장·사진)이 있었다.

김 단장은 “최민호 경기 때 경기장에서 숨이 막힐 뻔 했다. 정말 첫 금메달이 나올 수도, 안 나올 수도 있는 중요한 상황이었는데 막힌 가슴을 최 선수가 확 열어줬다. 국민들에게 용기와 기쁨을 주게 돼 너무 좋다”고 당시 소감을 밝혔다.

김 단장은 경기 전, 지도자로서 꿈을 갖고 있는 최 선수에게 “금메달을 따면 용인대로 불러주겠다”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.

김 단장은 지난 1 일 56 명(선수 25 명, 임원 31 명)의 선수단 본진을 이끌고 서울두(首都) 공항을 통해 ‘결전의 땅’ 베이징에 입성한 후 선수들이 최선의 컨디션에서 경기에 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격려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했다.

그는 유도 국가대표를 지낸 엘리트 경기인 출신으로, 14 년동안 대한유도회를 이끌어 왔다.

1967 년 그는 일본 도쿄(東京)에서 열린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유도 라이트헤비급에서 은메달을 따기도 했다. 당시 그의 은메달 획득은 신문사에서 호의를 발행했을 정도의 ‘쾌거’였다.

1994 년 김 단장은 대한민국 유도인구의 80%를 배출한 용인대(대한유도대학의 후신)의 2 대 총장으로 부임해 지금까지 4 연임하는 ‘신기록’을 세우기도 했다.

그동안 대한체육회 부회장과 유도회 회장 등을 맡으면서 쌓은 경륜과 폭넓은 인간관계는 이미 정평이 나 있다.

1943 년 경북 포항 출생으로, 172 cm의 보통 키에 체중도 65 kg 밖에 나가지 않았던 유도대학 신입생에서 한국 유도계의 수장으로 우뚝 선 그의 삶은 한국유도, 그리고 체육계와 함께 한 초지일관 인생이었다.

/용인=jungle@fnnews.com 이정호기자